

2022. 6. 7.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2.5월말 기준)

박미정 | 부전문위원(3705-6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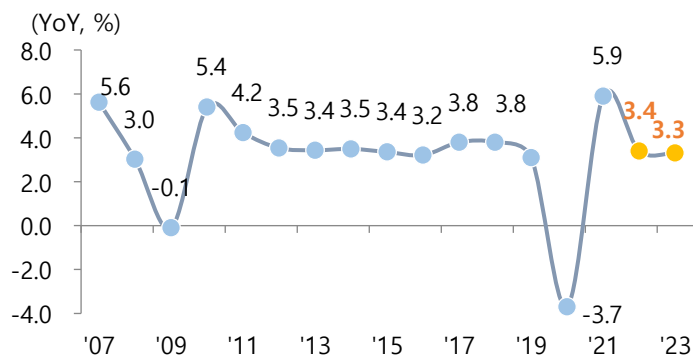
정예지 | 연구원(3705-6176)

- **세계(-0.2%p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오미크론 재확산과 美EU 등의 통화긴축 강화로 글로벌 성장 동력이 제한(Citi)
- **미국(-0.3%p ↓):** 고물가, 금융여건 긴축, 글로벌 성장 악화 등으로 하반기 이후 잠재성장률 하회 가능성. 유동성 축소, 주택 지표 악화, 소비자 신뢰지수 급락 등으로 12개월내 경기침체 가능성이 25%로 증가(JPM)
 - 장기모기지금리 상승과 함께 신규주택판매(4월 -16.6%_{q/m/m})가 1월 이후 약 30%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의 전조 현상인 주택투자(residential investment) 축소 조짐이 가시화(Barclays)
- **유로존(-0.2%p ↓):** 에너지 가격 급등(4월 기여도 3.7%p)으로 물가 정점(9월 8.9%)이 미국 보다 높을 전망이며 초과저축(연소득의 10~12%)이 상당기간 소비자출을 지지하겠으나 4분기에는 크게 둔화될 가능성(GS)
- **중국(-0.5%p ↓):** 봉쇄조치 연장에 따른 생산 위축(4월 산업생산 -2.9%, 서비스 -6.1%, yoy) 등으로 '22년 성장률 1%p 추가 하향(4.3%→3.3%) 조정. 주택시장 회복 지연도 경기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소지(Barclays)
 -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하반기 회복세가 소폭 반등에 그칠 전망이며 중국발 공급충격이 글로벌(중국 외) GDP 0.6% 둔화 야기(JPM)
- **일본(-0.3%p ↓):** 방역완화 이후 소비 및 관광 활성화, 추경(2.6조엔) 등에 힘입어 2분기 견조한 성장(+4%, q/q연율)이 기대되나 中 봉쇄, 주요국 통화긴축 등 대외요인이 수출과 산업생산 회복을 제한(Citi, Nomura)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2 ^f	2023 ^f
Barclays	2.8	3.1
BNP Paribas	4.8	3.8
BoA-ML	3.3	3.2
Citi	3.1	3.0
Goldman Sachs	3.2	3.1
JP Morgan	3.5	3.3
Nomura	3.0	3.0
Societe Generale	3.7	3.5
UBS	3.0	3.4
평균	3.4	3.3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 대비, 구매력평가(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 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 대비 변화분(%p)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2Q	22.3Q	22.4Q	23.1Q		
Barclays	5.0	3.0	1.5	1.5	3.0	1.7
BNP Paribas	-	-	-	-	2.6	1.9
BoA-ML	3.0	2.5	1.8	1.5	2.6	1.5
Citi	2.6	2.9	2.2	1.8	2.6	2.1
Goldman Sachs	2.5	2.3	1.5	1.3	2.4	1.6
JP Morgan	3.3	2.8	2.0	1.8	2.7	1.8
Nomura	2.6	2.6	1.8	1.0	2.5	1.3
Societe Generale	3.5	1.9	1.9	2.7	3.2	2.5
UBS	3.6	3.0	2.3	1.9	2.8	2.1
평균	3.3(-0.1)	2.6(-0.2)	1.9(-0.3)	1.7(-0.3)	2.7(-0.3)	1.8(-0.3)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2Q	22.3Q	22.4Q	23.1Q		
Barclays	0.2	0.6	1.1	2.2	2.3	1.8
BNP Paribas	-	-	-	-	2.8	2.7
BoA-ML	-0.1	0.5	1.2	1.7	2.2	1.5
Citi	0.5	1.1	0.6	3.0	2.4	2.4
Goldman Sachs	0.9	0.9	1.1	2.0	2.5	1.7
JP Morgan	2.3	3.0	2.8	3.0	3.1	2.8
Nomura	0.0	0.4	0.4	0.8	2.1	0.8
Societe Generale	1.2	2.2	2.2	2.1	2.1	1.9
UBS	2.2	2.7	2.5	2.5	2.9	2.2
평균	0.9(-0.3)	1.4(-0.4)	1.5(-0.6)	2.2(-0.1)	2.5(-0.2)	2.0(-0.2)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2Q	22.3Q	22.4Q	23.1Q		
Barclays	-0.7	4.3	4.6	4.9	3.3	5.3
BNP Paribas	-	-	-	-	4.5	5.5
BoA-ML	(1.6)	(4.2)	(5.0)	-	4.2	5.0
Citi	1.7	4.8	5.5	5.2	4.2	4.8
Goldman Sachs	1.5	5.0	4.5	4.3	4.0	5.3
JP Morgan	(-5.4)	(7.5)	(7.3)	(5.5)	3.7	5.3
Nomura	1.8	4.5	4.5	4.3	3.9	5.1
Societe Generale	3.6	5.0	4.8	6.0	4.3	5.8
UBS	1.4	3.1	2.9	3.2	3.0	5.4
평균	1.6(-1.9)	4.5(-0.3)	4.5(-0.1)	4.7(-0.2)	3.9(-0.5)	5.3(0.1)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2Q	22.3Q	22.4Q	23.1Q		
Barclays	5.9	5.1	2.2	1.0	2.1	2.0
BNP Paribas	-	-	-	-	1.2	1.1
BoA-ML	7.7	5.8	1.7	-	2.4	1.5
Citi	4.0	3.1	2.1	1.4	1.4	1.9
Goldman Sachs	3.6	2.6	2.0	1.4	1.3	1.7
JP Morgan	4.0	3.5	2.5	1.0	1.5	1.8
Nomura	6.9	5.2	2.4	2.8	2.2	2.6
Societe Generale	4.3	2.9	1.9	1.3	1.8	1.9
UBS	4.9	4.5	2.3	0.6	1.8	1.8
평균	5.2(-1.2)	4.1(0.6)	2.1(0.1)	1.4(0)	1.7(-0.3)	1.8(-0.2)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3 혹은 shho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